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3. 3. 7 (화)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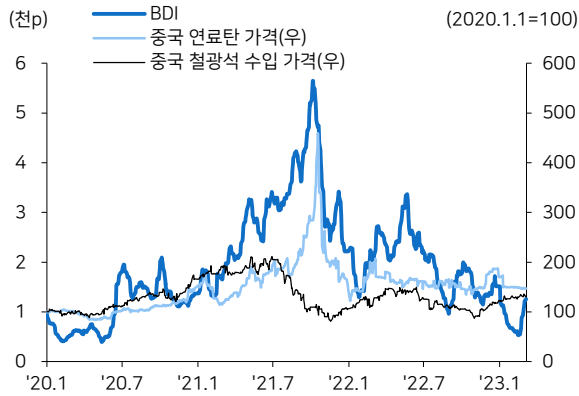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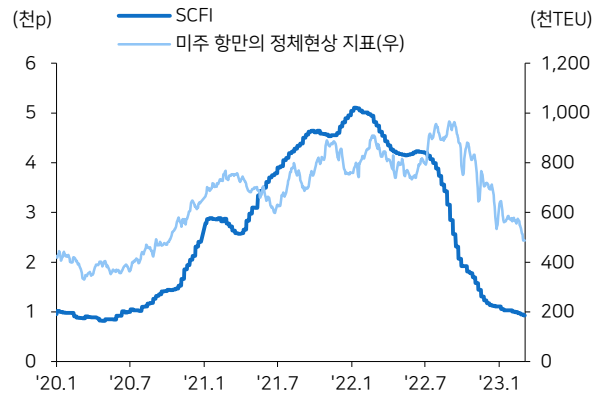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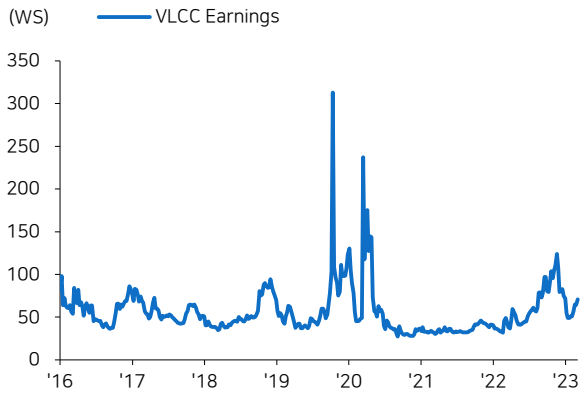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258.0p(+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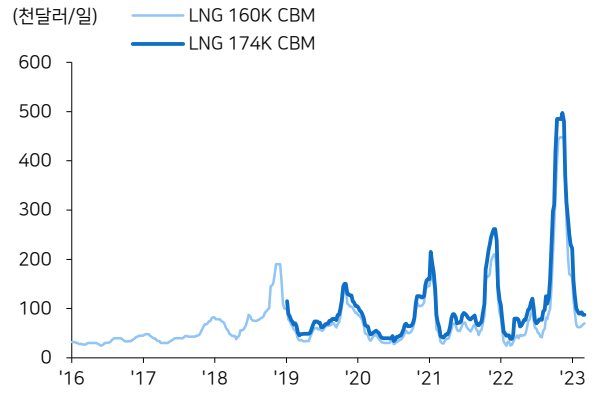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31.1p(-15.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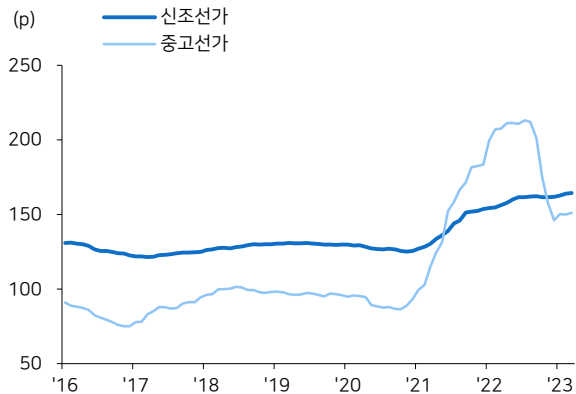
VLCC Spot Rate 70.7p(+6.5p WoW)



LNG Spot 운임 70.5천달러(+2.5천달러 WoW)
87.5천달러(+0.0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4.3p(+0.4p WoW)
151.1p(+1.2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94.0달러(-2.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okor finally sends 40-year-old LNG carrier for demolition

장금상선이 선령 40년의 스팀터빈 LNG선을 폐선했다고 보도됨. 브로커에 따르면 126,911CBM급 선박으로 2,130~2,180만달러에 인도나 방글라데시로 매각되었다고 알려짐. 글로벌 LNG선대 중 가장 오래된 10대 선박 중 하나였다고 언급됨. (Tradewinds)

Russia Plans to Use Arctic River To Send Coal Shipments to Asia

러시아가 Yenisei 강과 북극항로(NSR)를 통해 아시아로 석탄을 수출할 계획으로 보도됨. 내륙을 통한 새로운 수출항로 개척으로 2023년 목표 수출량인 3,600만톤을 채울 수 있다고 언급됨. 2022년에는 북극항로로 3,400만톤을 수출한 바 있음. 강을 통한 수송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언급됨. (High North News)

Rig famine: Offshore rig owners short of active assets to chase contracts

리그 시장이 타이트해지며 비싼 재활성화 비용에도 Cold-stack도 용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됨. 2021년 이후 신조 설비가 부족해 잭업리그 25척, Semi-submersible 3척과 드릴십 9척이 재활성화된 바 있음. Westwood Global Energy는 드릴십 재활성화에는 최대 1억달러와 18개월이 소요된다고 언급함. 최근 지난 2021년 하반기 업사이클보다 더 강한 수요와 가동률이 보인다고 알려짐. 한편, 2015년 이후 신규 발주된 리그는 2척뿐이지만, 불황에 배운 교훈으로 idle fleet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됨. (Upstream)

중국 리커창, “무질서한 부동산 확장 막아야 발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성장보다는 개혁과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도됨. 중국 GDP 중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5%이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탈출이 시급한 일이라는 하지만, 현재 부동산 위기를 겪는 부동산 개발기업 중에서도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언급됨. 부동산 부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며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 (헤럴드경제)

제주항공, UAM 개발 본격 닻 올린다

제주항공이 선진항공교통(AAM) 기체 제작사인 플라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UAM 분야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보도됨. 플라나는 수직 이·착륙 전기 항공기 개발 기업으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최대 7명 수용하고 500km이상 운항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짐. (매일경제)

“일요일에도 택배 받는다”...CJ대한통운, 통합 배송 브랜드 ‘오네’ 시작

CJ대한통운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잇는 모든 배송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오네(O-NE)'를 시작한다고 보도됨. 오네는 CJ대한통운의 택배 서비스와 다양한 도착보장 서비스를 포함하는 브랜드임. 내일 도착, 새벽 도착(오전 7시전), 주문 당일 도착 서비스 등이 있음.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짐. (매일경제)